

舞

‘춤생춤사’

컬처 & 피플

무용가 오윤환 박선희 부부



광주 무용이 국내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데 일조한 오윤환(오른쪽)·박선희씨 부부. 화려했던 현역시절을 회상하며 미소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2006년 발레 ‘서동요’에서 호흡을 맞춘 오윤환(왼쪽)·박선희씨 부부.



지난 9월 2일은 ‘티핑포인트 37.5도’를 3년만에 처음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날이었다. 박씨는 “1회 공연으로 끝나 아쉽지만 시민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작품을 뒤늦게나마 무대에 올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전했다. 11월말에는 서영무용단·비상무용단과 공동으로 ‘나뉘’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며 안무와 연출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발레리나와 발레리노, 무대위에

주연·안무 ‘티핑포인트 37.5도’ 전국 무용제 대통령상 등 4관왕 광주 로얄발레서 후진 양성

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았을 길을 택한 이들 부부에게 ‘무용’은 어떤 존재일까.

오윤환씨는 전직이었다고 말한다. 남자 무용수에게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신체조건을 가진 오씨는 다소 늦은 나이에 무용계에 입문했다. 대학 입시를 위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무용학원을 찾은 것이다.

“예술가셨던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무용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신체조건도 좋았지만 발레가 너무 잘 맞았어요. 실력도 빠르게 늘면서 자신감도 불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전혀 불리하지 않았어요.”

180cm를 훌쩍 넘는 키에 잘생긴 얼굴, 여기에 실력까지 뒷받침해주니 오르는 무대마다 주역을 꿰찰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스스로를 재직질하는 열정까지 더해졌다.

부상도 많았다. 수술대에 올라간 것만도 다섯차례다. 많은 무용수들이 부상을 입는 다지만 오씨는 유독 부상이 잦았다. “무릎 연골이 찢어지고 수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쪽 무릎 연대가 찢어져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가 놀랄 정도였지요. 허벅지 인대가 끊어져 수술하기도 했어요. 성한 곳이 없다고 하는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무대에 서고 있는 현직 발레리노다. 최근에는 팔을 다쳐 9월에 선보였던 ‘티핑포인트 37.5도’에 합류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전한다.

박선희씨는 발레를 시작했던 걸 ‘운명’이라고 표현했다. “중학교 진학해서 시작했어요. 매주 무용

수업이 있었는데 어느날 선생님께서 따로 부르시더니 발레학원에 데려가셨어요. 광주 무용계의 대모 박금자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원이었어요.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기 시작했지요. 재미있었거든요. 학교 행사때 무대에 올릴 군무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하고 시작했지만 멈추질 못했어요. 다행히 어렸을 적부터 몸에 살이 없었던 덕분에 발레를 하기에는 좋은 신체조건이었어요. 운명적으로 하게 된 듯 합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인지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기성 무용단원들과 무대에 오르는 일도 많았고 졸업후 시립무용단에 입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마다 주역을 꿰찼다. 솔리스트로 4년, 무용단을 그만둘 때까지 주역만 16년을 해 왔으니 그녀의 무용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부상의 시련은 찾아왔다. 2006년으로 기억했다. 인대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김소만을 한 채 1년을 무대에 올랐다. 그러면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내려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운 것도 많았다. 춤출 때 몰랐던 걸 느끼고 부상당한 단원들의 기분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안무가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평생의 반려자이기 전에 동료로서 25년을 함께 해 온 오윤환·박선희씨 부부는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꿈을 꾸고 있다.

“저희가 배워왔던 기술과 무대위 감정, 표현력 등 수많은 노하우를 후배와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교육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함께 배워야겠지요. 이제는 좋은 지도자로서 광주무용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 원로 서예가들 ‘충’ ‘효’를 논하다

9~15일 금남로 4가 메트로갤러리

광주를 대표하는 원로 서예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남도서예원로작가회(회장 김용석)는 9일부터 15일까지 광주 메트로갤러리에서 ‘제4회 남도서예원로작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70대 이상부터 90대까지 원로 서예인 2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충’과 ‘효’를 중심으로 한 작품 84점을 선보인다.

연륜과 함께 무르익은 그윽한 묵향이 돋보이는 원로 서예인들의 작품을 통해 남도 문화의 독자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창립한 남도서예원로작가회는 격년 마다 정기적으로 작품 발표전을 열고 있다. 또 매달 첫째주 화요일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수시로 가운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작품들은 원로 서예인들의 노숙한 표현으로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8053.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김용석 작 ‘풍수지탄’

방림2동 ‘밋밋들 한마음 마을축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내일 방림초등 앞길에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어울림공부방, 광주방림초등학교, 방림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생조직과 함께 9일 오전 11시부터 남구 방림초등학교 앞길에서 ‘제3회 밋밋들 한마음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어울림공부방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형극 공연, 마을전설로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마을 골목길 이름 맞추기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광주방림초등학교가 주도하는 생활장터, 지역 자생단체와 중·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추억의 놀이,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 또 세월호 희생자 추모 종이학 접기, 주된 재능을 선보이는 거리공연, 밋밋들 무료치아검진 등 특별행사도 예정돼 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베토벤을 위하여 II

광주피아노아카데미, 13일 금호아트홀서 연주회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한정숙 호신대 음악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5월 베토벤 작품 시리즈를 시작했다. 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45회 정기연주회는 ‘베토벤을 위하여 II’를 주제로 열린다. 내년 5월에는 세번째 베토벤 시리즈를 준비중이다.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소나타 1번’, ‘소나타 13번’, ‘소나타 15번 전



원’, ‘32개의 변주곡 C단조’ 등이며 김현정·박의혁·김은영·서윤아·한정숙씨가 무대에 선다.

지난 1990년 지역 대학 교육 현장에 몸 담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결성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매년 두 차례 작곡가별 테마 기획 시리즈, 향토 작곡가 피아노 신작 연주회 등을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또 창작피아노 독주곡 공모를 진행하고 신인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피아노 음악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p>CHANEL</p>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13</p> <p>IPTV 18</p>	<p>꿈을 담은 캔버스</p> <p>채널A</p> <p>www.ichannelA.com</p>
---	--	--	---	---